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1주차	일시	4월 26일 12 : 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곽민정(2431195)	O
		김래은(2211079)	O
		김희진(2031351)	O
		신진옥(2513023)	O
		조정하(2451041)	X
	진도	도서명: 흰	진도페이지: p.4 ~ p.46
	토론 내용	[좌측부터 신진옥, 곽민정, 김래은, 김희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감상 • 곽민정: 『흰』을 처음 펼쳤을 땐 소설이라기보다 짧은 시나 에세이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각 글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읽을수록 이야기들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고, 작가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 궁금해지면서 더 몰입하게 됐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흰색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공허하고 죽음과 닿아 있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특히 ‘배내옷’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짧은 글 안에 어머니의 슬픔, 두려움, 절박함 같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서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 책은 내가 가지고 있던 ‘흰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었고, 그래서 더 새롭게 느껴졌다. 아직 1장만 읽었지만, 다음 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 김래은: 처음 ‘흰’이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나는 그저 하얗고 뽀얀,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흰’이라는 색이 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실과 죽음, 애도와 기억의 색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주차	토론 내용	‘안개’였는데, 그냥 날씨가 아니라 감정도 말도 다 흐릿해지는 상태처럼 느껴져서 깊게 남았다. 또 계속 떠오른 건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은 아기의 존재였고, “이렇게까지 그리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 오래 맴돌았다. 알고 보니 작가의 조카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와닿았다. 책 표지가 회색인 것도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해보니 생과 사의 경계선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인상 깊었다. 읽기 쉬운 글인 줄 알았는데 읽을수록 문장 하나하나 곱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희진: 처음 가볍게 책을 읽었을 때는 각 스토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몇 번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답을 찾기 어려워서 인터넷에 책의 쉬운 설명을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상실, 기억하려는 마음, 애도라는 공통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경험과 감정을 하나의 색채로 묶어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신기했다. 동시에 흰 색이 밝고 따뜻한 색일 뿐만 아니라 차가운 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흰 색을 따뜻하고 밝은 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흰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색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히려 검은색을 상징하는 느낌이 들었다. 작가는 책에서 슬프다, 보고싶다, 그립다 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색채로 그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점이 새로웠고 흥미롭게 다가왔다. • 신진옥: 『흰』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건 책의 진행 방식이었다. 분명 소설인데 시처럼 한 단어마다 목차가 나뉘고, 그 이야기들이 연결되며 진행되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1장 ‘나’에서는 한강 작가 본인의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그래서 소설보다는 수필을 읽는 느낌이 들었다. 태어나기 전에 하늘로 간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 ‘보지도 못한 언니를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나는 그 그리움이 어찌면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나에게도 언니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점점 자라서 진짜 그리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죽음을 표현한 책인데 왜 제목이 ‘흰’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나는 죽음을 모두 무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그런 편안함이 흰색이라는 색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느꼈다. 토론 1장 - 나 • 주제: 왜 제목이 ‘흰’일까? -의견: 왜 제목이 ‘흰’일까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그런 의미에서 흰색은 어떤 것도 담기지 않은, 비어 있는 색이라 죽음을 상징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죽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태 없이 존재하는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색 역시 흰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흰색은 눈에 보이지만 실체가 없고, 때로는 편안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을 주는 색이라, 그런 점이 죽음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
----------------	------------------	---

1주차	토론 내용	• 주제: 책에 등장하는 ‘언니’는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으로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일까? -의견: 책 속에 등장하는 ‘언니’는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인물이지만, 주인공은 마치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처럼 깊은 그리움을 느낀다. 이 감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작가님이 실제로 겪은 슬픔을 언니라는 인물에 이입시켜 표현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죽은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직접 본 적은 없어도 마치 기억처럼 몸에 스며든 간접 경험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선명하게 그리워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보지 못했지만 마음에 깊이 남은 존재’에 대한 감정이 오히려 더 모호하면서도 진한 그리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주제: 책에서 가장 인상 깊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의견: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문’에서 301이라는 숫자가 쓰인 오래된 철문을 묘사한 장면이었다. 글로 읽고 있음에도 실제로 내 눈앞에 그 철문이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작가의 표현이 정말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또 ‘배내옷’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배내옷을 만들고 “죽지마”라고 외치는 장면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어 깊게 다가왔다. 그리고 ‘안개’ 부분에서는 안개의 움직임이 너무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돼서 인상 깊었고, 안개가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조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 • 주제: ‘흰 도시’에서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 한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던 사람, 그을린 잔해들 위에 끈덕지게 스스로를 복원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견: ‘흰 도시’에서 말하는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은 단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차례 죽음 같은 경험이나 파괴적인 순간을 견뎌낸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잔해 위에서 스스로를 복원하고 더욱 단단해진 존재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상처와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과거와 현재, 상처와 회복이 공존하는, 더욱 깊고 강한 내면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고 느껴졌다.
-----	-------	---

2주차	일시	4 월 30 일 12 : 00 학술 정보관 그룹 스터디 3F-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곽민정(2431195)	O
		김래은(2211079)	O
		김희진(2031351)	O
		신진옥(2513023)	O
		조정하(2451041)	O
	진도	도서명: 흰	진도페이지: 43 p. ~ 106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조정하, 곽민정, 김희진, 김래은, 신진옥]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감상평] 김희진: 2장은 1장의 등장하는 죽은 언니에 관한 이야기일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본 후 2장 제목의 ‘그녀’는 다른사람이었다.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흰의 이미지도 달라졌다고 느껴졌다. 전체적으로 우울했던 1장과 달리 2장은 더 밝고 희망찬 분위기였다. 2장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파도’였다. 높은 파도가 칠 때 드러나는 반짝이고 흰 부분이 아닌 그 아래 수천, 수만의 반짝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이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다. 조정하: 2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집중하기 보다 이야기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읽었다. 1장은 읽으면서 죽음과 관련됐고 연약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반면, 2장에서는 부정적이었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흰이 ‘눈 흰자’에 비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곽민정: 흰색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설 속 ‘나’와 ‘그녀’의 관계에 집중하며 읽었다. ‘각설탕’ 이야기에서 ‘그녀는 10살 무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언니는 죽었으니 ‘그녀’는 언니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했다. 이로써 ‘그녀’는 제 3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동생의 생활을 언니가 관찰하는 것이라는 느낌 또한 받아 ‘그녀’는 작가이고 서술자는 ‘언니’라고 생각했다. 김래은: 일단 2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난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1장은 직관적으로 흰 물건들에 비유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2장에서는 직관적으로 흰 물건들이 아닌, 개념, 의미 등에도 비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이야기들 중 ‘흰 개’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는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2주차	토론 내용	읽어서인지 매우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화하였다. 신진욱: 1장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느꼈다. 1장에서는 죽음을 주로 다뤄 우울하고 그리워 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2장은 우울하다기 보다는 밝고 희망차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1장에서는 작가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잡고 있는 ‘멜랑콜리’ 상태에 빠져있다고 느꼈다면, 2장에서는 작가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워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슬프지만 우울에 잠겨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죽은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쓴 것 같았다. [토론주제] • 이야기 ‘서리’의 대목 중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운명이 따라가는가?’에 대한 논의-김래은 조정하:이름을 따라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아가면서 강해졌다.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견딘다. 김희진: 이름 뜻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는 이름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름 뜻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래은: 자신은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름 뜻에 따라 향기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 신진욱: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좋게 지어주어도 자신의 이름 뜻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 이야기 ‘눈보라’에서 화자가 느낀 것처럼 무언가에 완전히 압도된 경험이 있는가-김래은 김래은: 친구가 보내준 바다영상에서 보이는 윤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곽민정: 시골에서 밤에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수 많은 별들, 은하수를 보고 압도되었다. • 2장에서 ‘흰’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는가.-김희진 조정하:눈 흰자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2장에서의 흰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김래은: 2장은 순수한 ‘흰’ 이라기 보다 다른 색들이 섞인 아이보리, 미색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순수하다기 보다는 다른 감정들이 섞인 ‘흰’이라고 느껴졌다. 신진욱: ‘흰’은 아무것도 없는 ‘무’ 그자체라고 느껴졌다. 흰은 죽음도, 기쁨도 무엇도 아닌 여백이라는 의미로 무엇이든 올라갈 수 있다고 느껴졌다.
-----	-------	--

2주차	토론 내용	- 투명한 것은, 흰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김래은 희진: 투명한 것은 투명한 것이지, 흰 색이나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하: 그림 그릴 때 창문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투명한 것을 흰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욱: 투명한 것은 그 뒤에 것이 보이는 속이 빈 것, 흰 색으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얗게 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래은: ‘해맑게 웃는다.’ 희진, 정하: ‘쉴쉴하게 억지로 웃는 것이다.’ 진욱: ‘슬픔을 체념하고 웃는 것이다.’
-----	-------	--

3주차	일시	5월 14일 12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4층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희진(2031351)	O
		김래은(2211079)	O
		곽민정(2431195)	O
		조정하(2451041)	X
		신진옥(2513023)	O
	진도	도서명: 흰	진도페이지: p.117 ~ p.189
	토론 내용	[좌측부터 곽민정, 김래은, 신진옥, 김희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감상평] 김래은 - {모든 흰} 마지막 부분을 통해 언니가 죽었던 뱃 속의 숨을 작가가 마시고 태어났다고 생각함. 김희진 - 1장과 2장이 애매모호했다면, 마지막 장은 2장에 혼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다. [흰]이 언니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 {언니}를 통해서 죽음을 받아드리는 감정을 느꼈다. {백지 위에 쓰는 몇 마디 말처럼}을 통해 1장 철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흰 눈이 다시 덮여지는 것이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곽민정 - 3장 제목 없는 부분을 통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언니의 죽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후 삶과 죽음이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흰색의 상징이 시작과 끝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영원히 지속될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진옥 - 1장이랑 3장이랑 분위기가 비슷했다. 죽음과 슬픔을 받아드리는 감정이 만약 어두운 것이 아닌 차분하고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해설을 읽은 후, 하얀색은 밝고 순수한 느낌과 대비되는 흰은 죽은 언니와 한강 작가가 연결된 공간이자 근본적인 차원을 통해 죽음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3장 제목 없는 부분을 통해 언니가 죽었지만 죽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다.	

3주차	토론 내용	<토론 주제 -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신진욱 - 신화는 좋아하지만 내세는 믿지 않는 편이다.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장례식을 경험한 후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거 같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라면 죽음 뒤에 안식이 더 편안하다”라는 말에 공감이 된다. 김희진 - 기독교라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된다.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고 동일시하다. 김래은 - 무교지만,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죽음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공평함이다. <토론 주제 -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진욱 - 일상이 똑같기 때문에 새로움을 탐구해야 하는 전공으로서 일상에 창조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가끔은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다. 김희진 - 삶에서 고통은 필연적이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잠잘 때는 편안함을 유지하니까 눈 뜰 때는 고통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김래은 - 철학적인 거 같다. 아직 내가 꿈꾸는 어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삶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삶을 강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듯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	-------	---

4주차	일시	5월 28일 12 : 00 그룹스터디실(4F)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희진(2031351)	O
		김래은(2211079)	O
		곽민정(2431195)	X
		조정하(2451041)	X
		신진욱(2513023)	O
	진도	도서명: 흰	진도페이지: 각자 흰색에 관한 글 쓰기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희진, 신진욱, 김래은]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공통으로 ‘달’에 대한 짧은 글과 ‘흰’에 대한 글 작성해왔음. -김희진 흰 달 그 곳에는 토끼가 산다고 했다. 절구에 무언가를 찧고 있다고 했다. 어릴 적엔 그게 떡이라 들었고, 조금 더 자라선, 그게 꼭 떡이 아닌, 끝없이 찧어도 모양이 잡히지 않는, 무언가. 누군가는 별뿔별을 보며 빈다. 하지만 별은 너무 멀다. 달은, 비교적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본다. 달을 향해 소원을 걸고, 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이를 떠올린다. 이제 사람들은 진짜로 달에 간다. 희미한 중력을 딛고, 낯선 흙을 밟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흔적을 남긴다. 과학이라 부르지만, 그 안엔 여전히 막연한 바람이 있다.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토끼도 없고, 소원도 안 들리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곳을 향해 고개를 드는 걸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지도. 비워진 흰 그릇처럼. 그래서, 모두가 그 위에 자신의 바람을, 사랑을, 미래를 엮는다. 그런 흰 달.	

4주차	토론 내용 마틴 루터 킹, 오바마, 카카오, 흑미, 커피, 밤, 검은 머리카락 모든 것이 서로를 끌어당긴다. 빛과 어둠은 끝없이 엉킨다. 그 사이, 경계는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결국 한 덩어리가 된다. 흰색은 밝지 않다. 검은색은 어둡지 않다.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며, 서로의 완전함이 된다. 검은 머리카락 속에 흰 빛이 있다. 흰 쌀 속에 검은 씨앗이 있다. 새벽에서, 검은 흙 속에서, 그들의 주장 속에서, 모두가 함께 숨 쉰다. 하얀 종이는 검은 먹을 기다리고, 검은 밤은 흰 아침을 기다린다. 그 경계에서,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없이 서로를 향해 흐른다. -신진옥 달 달은 큰 구슬 같다. 그래서인지 달을 보면 어릴 적 구슬치기 했던 날들이 기억난다. 어릴 적,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참 많이 했었다. 나는 구슬을 아주 좋아했어서 구슬에 욕심이 많았다. 어렸을 때는 작은 반짝임도 탐냈었는데 지금의 나는 달이라는 큰 구슬을 보기도 생각 없이 걸어간다. 물감 어렸을 적 물감을 처음 접했을 때가 기억난다. 새하얀 종이를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흔적들. 구덕하지만 물에 풀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찰나들. 그것들은 나에게로 와 나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였다. 찰나의 흔적이 되어 씻겨져 내려갔다. 김래은 -달 어렸을 때, 나는 달이 밤에만 나타나는 존재라고 믿었다. 어두운 밤에만 보이고, 낮이 되면 사라지는 줄 알았다. 내가 점점 자라고, 달을 바라보는 하루들이 늘어가면서 알게 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낮에도 달이 떠 있다는 걸. 물론 구름에 가려 밝은 빛을 내진 못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다. 달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화구가 무척 많다. 수십억 년 전부터 이어진 수많은 운석 충돌의 흔적이라고 한다. ㄴ 그 뚜렷한 분화구들은 마치, 빛을 머금은 블랙홀처럼 보인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달이 들어주고, 그것들을 조용히 흡수해 아무도 달을 수 없는 미지의 어딘가로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완성된 위로를 받는다. 흰 머리 내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으면 자연 갈색으로 빛난다. 아무래도 이건 엄마에게 물려받은 유전인 것 같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나보다 훨씬 더 뚜렷한 자연 갈색이다. 그래서 가끔 엄마의 머리카락을 보면, 갈색 머릿결이 금빛 실타래처럼 차르르 윤기를 띄고 있어 참 예쁘다. 요즘 들어 엄마가 흰 머리를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와 나는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나지 않아서, 늘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젊다고 생각해왔다. 흰 머리를 뽑을 때마다 느끼는 건, 날이 갈수록 흰 머리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	---

4주차	토론 내용	말하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이 드는 게 체감이 되는지 괜히 마음이 먹먹해진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영원이란 게 존재했으면 좋겠다. -장동욱 달 달은 가까운 듯 먼 듯 항상 하늘에 떠있다. 밤에는 밝게 빛나며 당당하게 우리를 지켜본다. 낮에는 밝은 하늘과 태양 아래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다. 나는 당당한 사람인가. 저 흰 달 아래 부끄럼 없이 당당한 사람인지 생각해본다. 최근 달을 본 기억이 없다. 내가 그 정도 여유도 없는 바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정말 한가하지 못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이 크다. 달이 희다. 나는 흰 사람인가. 에어팟 처음엔 콩나물 같다고 비난받았다. 나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저걸 누가 사냐 했지만, 어느 순간 내 귀에도 꽂혀있다. 길을 걸으면 귀에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다. 누군가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없으면 답답한 모두의 필수품이 되버린 흰 콩나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흰 에어팟을 끼고 길을 걷는다. 생긴건 똑같은 흰 에어팟이지만, 모두 다른 자신만의 음악을 듣는다. 오늘 내 에어팟에서는 윤하의 노래가 나온다. 옆사람의 에어팟에서는 다른 노래가 나오겠지 생각한다. 모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동상이몽 같다. <각자 자신의 글에 대한 배경> -김희진: 어릴 때 달에는 토끼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달을 탐사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달에는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달에 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글을 써보았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흰』을 읽으며 흰색이 마치 검은색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 검은색과 흰색의 불분명함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다. -김래은: 여유가 없을 때 달을 보며 아직 달을 볼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에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았다. 또한 달 사진을 찍을 때 보였던 검은 부분이 마치 블랙홀 같아 보였다. -신진욱: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구슬과 달을 연관지어 보았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미술을 통해 흰색 물감에 관한 기억에 대한 글을 써보았다.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곽민정 2431195	우선, 고등학생 이후로는 책을 접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독서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특히 나는 한강 작가님의 책 중 '소년이 온다'를 매우 재미있게 읽은 경험이 있어서 이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들도 궁금했었는데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클럽 활동 시간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여 내용을 재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2	김희진 2031351	『흰』은 간결한 문장 속에 상실, 기억, 애도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흰색이라는 색채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처음엔 이야기가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각 장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색과 감정의 연결, 경험을 색으로 풀어내는 서술 방식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특히 1장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2장은 더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그중 '파도' 이야기는 깊은 위로를 주었다. 마지막 3장은 앞 장의 모호하고 조각조각 나뉘어져있는 듯한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거 같이 느껴졌으며, '흰'이 죽은 언니와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흰』은 단순히 하얀색을 나타내는 흰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감정이 포함된 색으로서, 슬픔과 희망, 기억과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이고 소설인 것 같다.
	3	김래은 2211079	평소에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흰』을 읽고 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을 들으며 작품에 대한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흰』을 읽으며, 우리가 흔히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색깔 속에도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가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 사소한 것들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4	신진욱 2513023	평소 한강 작가의 이름만 들어보고 책은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평소 읽어보고 싶던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기존에 읽어오던 소설들과 다르게 진행되는 책의 방식 때문에 더 특별했던 것 같다. 또한 책을 읽고 이전까지 딱히 의견을 나누거나, 책에 대한 상상을 펼쳐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 다른사람들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5	조정하	-